

사람과 사람사이



약초 주산지 시찰

■ 임연학 회장은 2000년 약용작물 수급계획 구상에 앞서 99년 한약재 생산량 및 작황과약, 유통 시세 조사차 최근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원의 국내 약용작물 생산단지를 돌아봤다.



과 유통 시세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감초재배 산지 및 자생지를 돌아봤다. 황부회장은 국내 감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3년 전부터 농진청과 감초 시험재배를 진행중이다.

식품용규제약재 규제진정

■ 정형모 부회장은 최근 식품원료로 반입돼 시중에서 한약재로 변질 유통되는 수급조절품목의 수입제한을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생약생산 농민들의 서명날인과 함께 중앙회에 제출했다.



전주 약령시 축제 참가

■ 이승엽 전라북도지회장은 오는 17일부터 21일 까지 5일간 개최될 전주약령시 축제에 참여, 국산 한약재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요즘 행사준비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중국 감초산지 시찰

■ 황인구 부회장은 지난 9월 초 중국 감초재배 현황

한약재 규제개혁방안 교육

■ 김성배 경기도지회장은 10월22일 경기도가 마련한



규제개혁방안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석, 군소재지 생약 관련 공무원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유통망 구축 착수

■ 서명수 서울지회장은 요즘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산 한약재의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인사

[신규 중앙회원]

△하성연(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1리 341) △이수창(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834-5) △박상일(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55-4) △박진호(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537-10) △임병구(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577) △강규원(서울 광진구 중곡2동 150-

257) △신범수(서울 동작구 흑석2동 289-3) △엄성희(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11) △임정택(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선장 15)

[임명]



△최태영
경기도 구리시 공판
장장(9월13일부)



△박인하
경기도 파주시 공판
장장(9월13일부)



△김제왕
충북청주시 상당구 공
판장장(10월13일부)



△김동하
서울 노원구 공판장
장(10월25일부)

[면직]

△경남 양산시 지부장(겸) 김장현(99년 8월31일부) △경남 거제시 지부장 김재문(9월17일부) △충북 청주시 서부 지부장 채화식 △충북 청원군 지부장 신필구 △충북 옥천군 공판장장 김철(이상 9월18일부)

[내방]

△권은오(농림부 채소특작과장) △정종용(농림부 채소특작과) △권영도(교보생명 과장) △이윤석(교보생명 대리) △심범석(온세통신 영업본부 과장) △김동균(교보생명 과장) △정형모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이문섭 부회장 △허성무 부회장 △엄경섭 중앙이사 △임완수 강원도지회장 △김성배 중앙이사 △이한승 충북도지회장 △문대규 이사 △배성한 이사 △김수동 부산시지회장 △이승엽 전북도지회장 △서명수 서울시지회장 △신현석 경기도양평군 지부장 △최태영 경기도 구리시공판장장 △김원웅 강원도 동해시 공판장장 △이종범 서울 서대문구 공판장장 △강대석 서울시 공판장장 △김해봉 서울 용산구 지부장 △안지명 서울 용산구 공판장장 △이홍식 서울 강서구 지부장(겸)

부음

■ 이승엽 지회장 부친이 지난 10월4일 노환으로 별세.
■ 윤창권 의정부시 공판장장 부친이 지난 8월24일 노환으로 별세.

단신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여

제1회 한의학국제박람회가 지난 9월29일부터 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 전시관에서 개최됐다.

경희대학교 5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방병원, 의료기기 업체, 약재, 건강식품 등 1백80여 국내업체와 해외 7개국가가 참여하는 국제박람회로 한

의학 관련 다양한 건강정보가 제공됐다.

「21세기 한의학의 방향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21세기 첨단 한의원을 제현하는 주제관, 허준, 이제마 선생을 주제로 표현한 역사관이 인기를 끌었으며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한의학자들의 암, 당뇨 등 7대 성인병에 대한 최신 한방치료법을 소개하는 세미나도 진행했다.



또한 일반인들은 물론 한의학종사자도 보기 어려운 한의학 관련 유물들이 최초로 전시됐으며 다약공연, 한방건강체조 등 각종 이벤트 행사가 펼쳐졌다.

한국생약협회도 이번 박람회에 참가 국내재배 또는 자생약초 1백여종을 전시 판매하는 한편 약초 생물표본 및 약초분재 등을 전시 국산생약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서울시지회 발족

한국생약협회 서울시지회가 발족됐다. 지난 9월1일 생약협회 회의실에서는 서울시 각 구 지부장 및 공판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지회가 구성됐다. 서울 시내에서 생약협회 지부 및 공판장 운영 회원은 총16명. 초대 서울시지회장은 서초구 공판장장인 서명수씨가 만장일치 선입됐으며 공판장을 운영중인 강대석씨가 총무로 활동할 계획이다. 서울시지회는 앞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국산 한약재의 효율적인 유통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예탁: 1. 생약재배기술지도
-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회비:

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하시기 바라며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키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제일은행 158-10-010071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